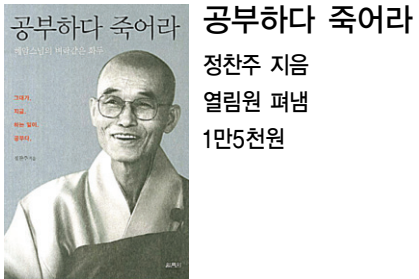


스님 말씀 따라 온몸 바치면 '수행' 이고 '행복'



“지금 우리는 꿈 세상에서 꿈을 꾸고 있는 미혹한 중생입니다. 그런데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미혹한지도 모르고 송장 꼬 집고 다니는 사람들이 산 사람인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다 죽어라 말을 많이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를 뒀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책은 2001년 입적하신 해암 스님(사진)의 가르침들을 거울삼아 써낸 산문집이다. 저자는 가야산, 오대산, 지리산, 태백산, 영축산 등 스님이 정진했던 거처를 따라가며 스님을 회상했다. 그리고 스님의 삶에서 기억될 만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조한다.

2012년 9월부터 3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교보문고 북로그에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글을 모은 것이다. 책에는 연재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해암 스님의 어록이 함께 실려 있다. 80년 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큰스님이 주로 일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해암 스님의 화두 드는 법을 만날 수 있다.

저자 정찬주는 30여 년간 '불교'를 가지고 글을 써왔다. 몇 해 전 선철 스님이 정진했던 뜻을 모아



미소굴 등 스님 생전 수행처 돌며
선지식의 삶·수행·가르침 되새겨
'공부하다 죽어라' 출·재가 모두 위한 것
범어·산문 만나 무아체험 길 안내

편어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재작년 연초 법정 스님의 삶을 좇아 쓴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의 맥을 잇는 산문집이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를 통해 선철 스님이 무엇을 공부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화두 삼아 참다운 삶과 수행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를 통해서도 자기다운 영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며 법정 스님이 몸소 체화했던 무소유 사상의 성립부터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살렸다. 그리고 이제 해암 스님의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말씀을 화두 삼아 무아를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의 길을 안내한다.

“스님이 수행했던 산중 암자를 다니면서 문득 '공부하다 죽어라'가 절 울타리 안의 단순한 범문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에게 던진 벼락같은 화두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자는 스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절집 식물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책은 거기에서 시작했다.

“‘공부하다 죽어라.’ 불 때마다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수행자에게 던진 법이겠지만 누구에게나 깨우침을 주는 불벼락 같은 말씀이다. 작가인 내 경우엔 글을 쓰다가 죽어라는 말씀으로 들린다. 동

행한 유동영 사진작가에게는 사진을 찍다가 죽어라는 것이다. 스님이 말씀하신 '공부하다 죽어라'는 직접적으로는 위법망구(爲法忘軀), 진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몸을 버리라는 의미겠지만 또 한 편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지금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일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때까지 녹아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자각한 바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스님의 그 말씀을 화두 삼아 무아를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온몸을 다 바친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삶의 행복이 아닐까 싶다. 그 일이 자기를 위하고 남을 위한 일이라면 복덕까지 쌓는 일이니 얼마나 더 없는 행복이고 정진인가.”

'글' 이라기보다 지도를 읽어 주는 듯한 그의 문장들이 무아를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의 길을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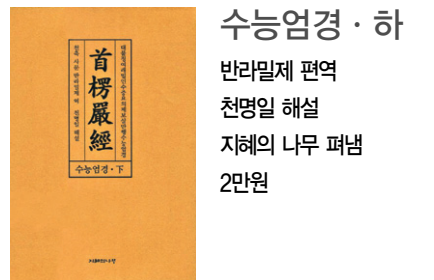
미소굴 전경, 스님의 유품들, 손수 일군 차마발, 오대산 전경 등 책에는 스님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 텍스트와 텍스트를 채우고 있어 현장감을 더한다. 본문 뒤엔 스님의 행장이 정리되어 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해암 스님은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46년 해인사에서 인공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효봉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승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서리발같이 독려하던 스님의 생애는 끝없는 정진뿐이었다. 해인사로 출가한 27세부터 방바닥에 눕지 않는 좌장 불과 수행과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을 평생 동안 지켰다.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으로서 선철 스님 이후에는 중 단계역에 앞장섰다. 해인총림 방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거쳐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되며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법랍 56세, 세수 82세로 열반했다.

과학적으로 밝혀낸 부처님 말씀



〈수능엄경〉은 인류의 머리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난해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전이다. 경전연구가이며 전통집구학자인 저자 천명일은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의역에 가까운 해설로 경전을 강의했다. 마음에 대한 통찰과 오안설을 통한 저자의 자유로운 필체는 부처님의 세계로 안내하며, 한 문 원전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한편 아래에는 한글로 토를 달아 표기하여 일반인도 경문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 중권에 이은 하권으로, 8권에서 10권까지를 담았다.

능엄경(楞嚴經)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약칭으로, 수능엄경, 대불정수능엄경, 대불정경, 만행수능엄경 등으로도 불린다. 능엄경은 인도의 나라(나란다에서 비장(秘藏)하면서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왕명으로 인해 당나라 이전까지는 중국과 한국 등에 전래되지 못하다가 705년에 중인도 스님 반말밀제가 한역하면서 전래됐다. 능엄경은 스님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교과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불교에서는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과 함께 강원의 사교과 과목으로 채택된 경전이다.

박재원 기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구원확률 높이기 프로젝트

위르겐 슈미더 지음 | 배명자 옮김 | 펜타그램 펴냄 | 1만6천원



“‘구원확률 높이기 프로젝트’를 벌였던 저자가 또 한 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종교’라는 주제는 대중들 앞에 선불리 꺼낼 수 없는,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다. 이 어렵고도 까다로운 주제를 유쾌·상쾌·통쾌하게 풀어나가면서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재주를 지닌 저자 위르겐 슈미더는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보고자 다소 엉뚱하고 독특한 모험을 시도했다. ‘구원 확률 높이기 프로젝트’다. 4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는 한 종교만 믿을 것이 아

니라 되도록 여러 종교를 믿고 그들이 제시하는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여 구원받을 확률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슈미더는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나고 자란 ‘모태 신자’지만, 청소년 시절부터는 지루한 강론에 지쳐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왔다. 결국 성인이 되자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때에만 교회에 나가는 ‘사출 신자’가 되고 만다. 그런데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인 그도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종종 불안감과 공허함을 느끼곤 한다. 무엇보다 그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자문해본다. 종교 혹은 영성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거의 강제적으로 주어졌던 가톨릭을 또 다시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싶진 않았던 슈미더는 자신에게 딱 맞는 종교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도교 같은 세계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신흥종교와 대체종교까지 공부하고 체험한다.

-각종 종교경전 및 종교서적 틈틈이 읽기
-다양한 종교의 성물들로 자신만의 기도 공간 꾸미기
-필리핀 교회에서 귀신 쫓는 의식 관찰하기

하나의 종교보다 여러 종교 진리 수용

다종교 우리사회가 관심가져야 할 이야기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힌두교 신자 이야기 경험하기

-어릴 때 다녔던 성당에 나가 하느님과 차분하게 일대일 대화하기

-불교학자 스티브 레빈이 창안한 ‘죽음을 상상하는 명상’ 시도하기

-독실한 이슬람교신자와 철저한 무신론자 부부의 속내 들어보기

저자는 그야말로 4년 여 동안 여러 종교와 관련된 체험을 수행한다. 슈미더가 벌인 일련의 열정적인 도전과 모험은 언뜻 보면 너무도 진지해서 오히려 우스꽝스럽거나 생뚱맞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공부와 체험은 허탈한 웃음에 그치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슈미더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야고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또한 예전에 마치 못해 성당에 나갔던 것과 달리, 자신만의 확실한 생각과 판단을 통해 주체적으로 종교생활을 펼쳐나간

다. 무엇보다 무지몽매함에서 오는 편협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종교를 무조건적인 신앙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다.

슈미더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에게 딱 맞는 종교 하나를 고르는 것이 목표였으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종교에만 ‘울인’하기보다 여러 종교의 좋은 점들을 두루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21세기에 걸맞은 신앙생활의 양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는 이를 ‘범신앙론’이라 규정한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가속화된 정보의 세계화 덕분에 예전에는 몰랐던 세계의 거대 종교들, 새롭게 부상한 신흥종교들, 대체종교에 대한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와 동시에, 종교를 영성을 끌어올리는 매개체로 여기는 대신 끝없는 욕망을 실현시켜줄 ‘도깨비 방망이’ 줌으로 여기는 세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종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종교가 모든 질문에 모든 답을 주지 않으며, 모든 종교가 인생의 중요한 물음들에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있다는 저자의 ‘범신앙론’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야기다.

저자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속고하고 마음과 머리를 열어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존중하게 하는데 영감을 준다면 기쁘겠다.”고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3 ~ 1/2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광명,만현	한지공회지사
3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개정증보판)	김재웅	웅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샘터퍼커스
5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6	달라이 라마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진리의 화원	덕현	법화
8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9	롭상 람파의 가르침	롭상 람파	정신세계사
10	그대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선욱 해자	아침단청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15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9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불과 이론 대성자의 경천동지할 대사자후!!
우주 탄생과 영혼체의 비밀에 대한 초유의 선언!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 따른 **세계종교 비교**

감수·자재 만현 큰스님
글·법장 김중섭
715쪽 | 값 25,000원

달라이 라마 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아사대 인류가 읽어야 할 양서!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출판 운주사 T. 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